

롯데카드가 '롯데백화점 플렉스 카드' 고객 이벤트를 진행한다. 3월 8일까지 인스타그램에 본인만의 스타일로 롯데백화점 플렉스 카드를 홍보하는 사진 또는 영상을 업로드하면 10명을 선정해 롯데백화점 5만 원 상품권을 제공한다. 22일까지 틱톡에 듀엣 댄스 챌린지 영상을 업로드하면 10명을 선정해 스타벅스 3만 원 상품권을 준다. 정영욱 기자



대한상의 회장 취임 앞둔 최태원 SK그룹 회장, 배터리 소송 합의 결단 내리나

'3조' vs '수천억'... 회장님 담판이 열쇠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양사 합의금 규모 온도차 매우 커 SK 측 "수조 원대 합의금 어려워" "전권 권 총수들이 직접 합의해야"



최태원 SK 회장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전기자동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10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SK이노베이션에 최종 패소 판결을 내리면서, 이제 양사의 합의 여부와 합의금 규모에 모든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ITC 결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양사가 이미 수천억 원을 소송비용으로 쓴 상황에서 주

가 비용과 시간을 소모하는 것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며, ITC 결정으로 배임 논란에서도 벗어나게 되었기 때문에 빠른 합의가 최선의 시나리오라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문제는 합의금 규모다. 현재 양사의 온도차는 매우 크다. 구체적인 액수를 밝힌 적은 없지만 업계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은 2~3조원대의 합의금을, SK이노베이션은 수천억 원 수준의 합의금을 제시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배터리부문 연 매출이 2조 원이 안되는 상황에서 수조 원대의 합의금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SK이노베이션측은 판결 직후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실질적 판단이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한다"면서 "합리적인 조건에서라면 언제든지 합의를 위한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연휴 이후 15일 현재까지

합의를 위한 양사의 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종현 LG에너지솔루션 사장과 지동섭 SK이노베이션 배터리사업 대표는 18일 열리는 한국전자산업협회 이사회에서 조우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최종 결정권이 없는 CEO 레벨에서는 전격적인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전권을 전 최태원 SK 회장과 구광모 LG 회장이 직접 만나 합의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최태원 SK 회장은 3월 24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취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최 회장은 지난 2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직을 수락하며 "상외와 국가 경제를 위해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최 회장이 대한상의 취임 전 대승적인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고 보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현재 3조 원을 들여 미국 조지아주 잭슨카운티에 1·2 공장을 건설 중이다. 합의가 무산될 경우 연간 43만 대 분량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이 공장들은 1~2년 밖에 영업할 못하고 문을 닫을 위기에 놓인다. SK이노베이션이 미국에서 배터리 사업을 이어가려면 합의가 최선의 해결책이다.

한편 증권가에서는 SK이노베이션의 패소가 단기 약세인 것은 분명하지만 장기적으로 주가에 큰 충격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기술력과 사업이 이미 성장 궤도에 안착해 있다는 분석 때문이다. 15일 SK이노베이션의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4.22%(1만2500원) 내린 28만4000원에, LG화학은 3.13%(3만원) 오른 99만원에 장을 마감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건강기능식품으로 면역력 강화해요"

롯데백화점이 21일까지 건강기능식품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종합비타민인 GNC '올리비 올트라 비타 액션', 비타민뱅크 '멀티비타민 올맨+유엔'을 비롯해 면역력 강화와 피로회복에 좋은 세노비스 '프로폴리스 기프트 세트' 등이 대표 상품이다.

정영욱 기자, 사진제공 롯데백화점

검찰, 최신헌 SK네트웍스 회장 영장 청구

비자금 조성 의혹·특경법상 횡령·배임 혐의 적용



최신헌 SK네트웍스 회장

검찰이 15일 거액의 회삿돈 횡령과 배임 혐의로 최신헌(사진) SK네트웍스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전준철 부장검사)는 이날 최 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최 회장이 SK네트웍스 등에서 거액을 횡령해 유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018년 SK네트웍스를 둘러싼 200억 원대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하고 관련 내용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장기간 계좌 추적 끝에 지난해 10월 초 SK네트웍스와 SKC 본사, SK텔레시스, 최 회장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뒤 회사 임직원들을 불러 최 회장의 비자금 조성 지시 여부를 확인했다. 1월 7일에는 최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2시간 넘게 조사했다. 검찰은 최 회장이 빼돌리거나 회사에 피해를 준 총 금액이 FIU가 당초 포착한 의심 규모보다 큰 1000억 원대에 달한다고 파악했다.

최 회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형이자 SK그룹을 창업한 고 최종건 선경그룹 회장의 둘째 아들이다. 2000년부터 15년 간 SKC 대표이사 회장이었으며, 2016년 3월부터 SK네트웍스 회장을 맡고 있다. 정영욱 기자

"연임 or 교체"...3월 임기만료 금융권 CEO들의 행보는?

하나 김정태 회장, 차기 후보 리스크로 4연임 무거워 권광석 우리은행장·윤호영 카뱅 대표도 연임 유력

3월 금융권 CEO(최고경영자)들의 임기만료가 다가오면서 연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월 정기 주주총회까지 임기인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은 4연임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3연임에 성공한 만큼 그간 추가 연임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비쳐왔다. 하지만 차기 회장 유력 후보군이 법률적 리스크를 안고 있어 연임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차기 회장으로 유력한 함영주 부회장은 채용비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며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IF) 불안전판매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받은 뒤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징

계 취소 행정소송도 진행 중이다. 또 이진국 부회장 겸 하나금융투자 대표는 주식 선행매매 혐의로 금융감독원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

하나금융 내부규범상 회장이 만 70세를 넘길 수 없어 올해 만 69세인 김 회장이 추가 연임을 하더라도 내년 정기 주주총회까지 약 1년의 임기만 연장할 수 있다. 김 회장이 1년 더 연임하고 내년에 차기 회장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 새 회장을 선출하지는 의견과 장기 경영체제에 대한 금융당국과 여론의 부정적 인식 등이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은행권에서는 지성규 하나은행장, 권광석 우리은행장,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가 3월 임기를 마친다. 2년 임기를 마무리하는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불확실성과 저금리 등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2020년 당기순이익의 2조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지성규 하나은행장, 권광석 우리은행장,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왼쪽부터)

101억 원이라는 안정적 실적을 기록해 연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1년이라는 짧은 임기를 부여 받고 지난해 3월 취임한 권광석 우리은행장은 DLF 사태로 혼란스럽던 조직을 추스르고 소비자보호 강화에 주력하면서 고객 신뢰도 제고에 힘쓰는 공적 요소로 꼽힌다.

1월 2일 임기가 만료됐으나 3월 주주총회까지 임기가 연장된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도 연임이 유력하다. 지난해 당기순이익의 1136억 원으로 흑자를 달성하는 등 2017년 설립 때부터 대표를 맡아 리빙 인터넷전문은행으로 간신히 키워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영욱 기자 jiy@donga.com

'자본공유앱APP' 발명특허 등록 제10-2143479호
YouTube '성경 경제기부학' (1~10부) 시청 후 문의바람

후손과 1030세대를 위한 인류의 유일한 단일회사 - 스마트플랫폼 하이우분투(주)

반려동물(개, 고양이) 기본소득 150만원 평생지급

누구나 모두 기본소득 300만원 평생지급

한해 버려지는 반려동물 135,000마리, 하루 평균 327마리. 이를 위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반려동물 가족으로 둔 1시간에 2명씩 자살하는 1030세대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통해 사람과 반려동물을 살리는 신리네상스 코스모스 프로젝트입니다.

문의처
세계교회대혁신 '홍익자리 무한창출 교회종교재단' 등록!!!
 ● 총재 황호관 목사 010-6249-5892 ● 비서실장 임승호 목사 010-5329-9097 ● 사무총장 윤병모 목사 010-5063-8831 ● 사무국장 강석만 목사 010-4277-0691
 ● 본부교회 김기성 목사 010-4688-3491

환경과 사람 살리는 최고품 최저가 모든 재화 및 기본소득 300만원 이상 평생 무상증여, 투자 전혀 없이 단 한명의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고 전인류 반려동물 누구나 모두 선착순 자동부자 우분투 기본소득 신 리네상스 코스모스 프로젝트

홍익자리 무한창출 기본소득 스마트플랫폼
 인류의구세주
 21세기제2의석유
 K-biz, K-pay, K-platform
 성경기부경제학
 '자본공유앱APP'
 선착순 자동월대기부자 품앗이계

● 서울 백인초 010-6462-6712 / 역삼 캠퍼 010-5647-5428 / 김석우 청국장 010-7653-5373 / 이추자 010-9339-8649 / 신비전 010-9220-4334 / 김명배 010-8220-8801 / 강영석 010-3274-5289
 ● 부산 김창주 010-9852-6452 / 백삼석 010-7309-1000 / 민명숙 010-5118-5263 / 임원성 010-3315-1517 / 심정희 010-5644-2788 / 윤영기 010-4424-7161 / 최영민 010-4741-7008
 초안고 010-7374-4111 / 서재운 010-8770-2935 ● 대전 김진규 010-8029-0059 / 임원환 010-3742-5938 / 전달민 010-2391-8259 ● 대구 권영희 010-4646-4950
 ● 울산 서명환 010-8003-5323 / 최태수 010-4830-1810 ● 창원 이철배 010-3572-4616 / 이승현 010-5769-0532 ● 천안 김재호 010-6258-3510 / 오영숙 010-3804-3424
 ● 인천 박준표 010-3227-0933 / 주만 홍원표 010-6717-1779 / 서동원 010-3489-4190 / 김보중 010-8488-2999 ● 김보정 010-6416-1888 ● 이진 허찬석 010-4707-2659
 판전희 010-5177-9479 ● 여주 정근영 010-8513-3833 ● 용인 김기영 010-6285-7653 ● 수원 최만드래 010-3435-0158 / 박우영 010-5221-8119 / 리명태 010-8005-3616
 ● 경기 남부 캠퍼드 010-6806-1931 / 노수림 010-5153-5983 ● 평강 교명철 010-5463-6952 ● 중국 장동우 010-4280-4616 / 남미옥 010-6852-8891 ● 하와이 윤이나 010-8763-8742

하이우분투(주)
1644-6733